

SK E&S, 美 KCE 인수... “2025년까지 세계 1위 도약”

(에너지솔루션 기업)

지분 95% 인수해 경영권 확보
3년여 간 총 6억달러 투자 계획
에너지 저장하고 판매·활용 등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선도 목표

SK E&S가 에너지를 저장했다 적재 적소에 활용하는 에너지솔루션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 E&S는 미국의 그리드솔루션 기업인 Key Capture Energy(KCE)의 지분 약 95%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향후 2~3년간 총 6억달러를 투자해 KCE를 글로벌 선두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앞서 SK E&S는 지난 1일 회사의 비전인 ‘파이낸셜스토리’를 공표하는 자리에서 에너지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Top-tier) 기업으로의 도전을 선언했다.



SK E&S가 인수한 KCE가 텍사스에 운영 중인 ESS 설비.

/SK E&S

2016년부터 미국내 그리드 솔루션 사업을 추진해 온 KCE는 현재 약 3GW의 ESS(Energy Storage System)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미국 그리드솔루션 선도(Top-tier) 기업이다. 현재 뉴욕과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 북동부와 중부 지역 및 캘리포니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드솔루션은 전력공급의 변동성과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인 ESS를 활용하되, 송전망과 배전망에 연계된 ESS를 인공지능(AI)기술과 접목시켜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일컫는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이 날씨와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ESS에 저장해 둔 전기를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판매할 수 있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SK E&S는 KCE의 그리드솔루션 사업 전문성을 활용하고, 추가 성장자금 투자 및 사업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KCE를 미국내 1위 기업이자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2~3년 동안 KCE의

경영권 인수와 신규 프로젝트 추진 등에 약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 E&S는 이번에 진출한 그리드솔루션 사업분야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규모 송전·배전망이 필요하지 않아 전력망 증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유정준 SK E&S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과제인데, 에너지 생산부문에서만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KCE의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잉여 전기를 활용하는 등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극대화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100조 글로벌 데이터시장 공략 박차

글로벌 데이터 기업 애플론 인수
인공지능과 결합 등 시너지 기대

KT가 1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글로벌데이터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KT는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쿠옥그룹이 보유한 글로벌데이터 전문기업 애플론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액은 1억4500만 달러(한화 약 1700억원)에 달한다.

KT는 이번 애플론 인수를 대신증권의 자회사인 대신프라이빗에쿼티와 공동 투자로 진행했다.

KT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한 애플론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데이터는 국내외 고객 및 해외 통신사에게 PoP(해외 분기 국사),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등 해외인프라에 기반을 둔 국제전용회선, 이더넷, VPN,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 등 IT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글로벌데이터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72조원으로 추산된다. 2025년까지는 약 40% 성장하며 1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론은 지난 2003년 런던에서 설립돼 세계 20개 국가 41개 도시에 260개 이상의 PoP를 보유하고 있다. 런던·뉴욕·싱가포르 등에 3개의 인터넷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KT는 이번 인수를 통해 애플론의 세계 네트워크, 영업 거점, 기술력과 KT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세일즈 역량 및 국내 B2B 고객 기반이 결합하면 양

사 간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KT는 애플론이 세계 주요 거점에 보유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어 이번 인수가 자사 글로벌데이터 사업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T는 애플론 인수로 확보한 글로벌 데이터 사업의 인프라와 고도화된 서비스를 인공지능 서비스와 로봇 등을 디지털 전환 사업에 결합해 DIGICO로 변신을 가속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금까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본사와 해외지사 간 데이터 연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KT가 세계에 서비스 거점을 보유한 애플론을 인수해 글로벌데이터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창대 기자 cdl@

삼성전자, 반도체 4종 ‘탄소 발자국’ 획득

탄소저감 노력 인정받아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로도 깨끗한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시스템 반도체 4종에 대해 ‘제품 탄소 발자국(PCF)’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 탄소 발자국과 탄소 저감 인증을 취득한데 이은 친환경 경영 성과다.

인증 제품은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업에 적용되는 모바일 SoC인 엑시노스 2100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HM2, 그리고 TV에 적용되는 SoC S6HD820과 타이밍 컨트롤러 S6TST21 등이다.

PCF는 제품을 생산해 폐기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탄소를 ‘탄소 발자국 산정 표준’에 따라 산정해 부여된다.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전기, 용수, 가스 등의 유틸리티와 원료 생산 과정, 그리고 수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엄격한 국제심

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특히 반도체는 인증 과정이 더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식각과 증착 공정에서 가스를 감축하고 제품 효율을 높이는 등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해왔다.

카본 트러스트 인증위원장 휴존슨은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제품 탄소 발자국은 삼성전자가 탄소 배출을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지표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장성대 전무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삼성전자의 환경친화적인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제품 탄소 발자국 획득과 저감 인증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달에서 물 생산”... 한화에어로, 우주자원 활용 첫 발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술개발 맞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달과 화성 같은 우주행성에서 현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스페이스 허브 소속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개 정부출연 연구소(이하 정부 출연(연)과 우주 현지자원활용(ISRU)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뉴스페이스(신 우주)’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9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악기름에서 정부 출연(연)과 ‘민간-출연(연) 우주 현지자원활용(ISRU)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국내 우주기업 중 정부 출연(연)과 ISRU 관련 협약을 맺은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다.



8일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악기름에서 (왼쪽부터)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중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민간-출연(연) 우주 현지자원활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주 현지자원 활용은 달·화성 같은 우주행성에서 현재의 자원으로 필요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시스템을 일컫는다. 물·산소·태양전지·건축자재·발사체 연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서에는 ▲현지 자원 활용 관련 아르테미스 등과 같은

탐사 프로그램 참여 협력 ▲유용자원 추출 시연 탑재체 개발에 각 기관별 전문영역 협력 ▲달 및 화성 현지자원 활용 초기·장기 플랜트 구축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은 서명 후 10년 동안 유효하며 각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1년 씩 연장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

2030년까지 누적 60만톤 사용 목표

LG전자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대폭 확대한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을 누적 60만톤 사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2025년까지 누적 20만톤 사용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년동안 사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약 2만톤, 5년만에 10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은 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을 다시 활용해 만든 소재다. LG전자는 현재 TV, 모니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의 일부 모델에 내장부품 원료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외관부품에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있다. LCD TV 대비 플라스틱 사용이 적은 올레드 TV 라인업을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는 등 저플라스틱 제품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폐전자제품 회수를 통해 순환경제도 실현한다. 2006년 시작해 2030년까지 누적 회수량 목표를 당초 450만톤에서 800만톤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말까지 307만톤을 회수했다.

LG전자 품질경영센터장 김준호 부사장은 “폐전자제품을 더 많이 회수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은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